경인일보

[경인지역 정치인 연말연시 이슈·줌인·(7)]DMZ에 새활력 불어넣기 열정...민주당 박정

"한반도 번영에 꼭 필요...평화경제특구법 발의"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12-30 제4면

29일 박정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한반도 평화를 통한 우리사회 새 활력 제고를 위해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2.29 /박정 의원실 제공

관계 부처와 이견 설득통해 거의 조정단계... 내년 통과 가능성

예술작 설치·평화테마 ICT·실감미디어체험관 운영 예산 확보

경인지역 정치인 연말연시 이슈·줌인

>7< DMZ에 새활력 불어넣기 열정… 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박정(파주을) 의원은 29일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을 적극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화가 곧 경제다.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의 밝은 미래와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DMZ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데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그는 21대 국회 개원 첫날 '평화경제특구법'을 대표 발의하고, DMZ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박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의 경우, 그동안 관계부처가 이견을 제시해 논의가 어려웠는데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해 이견을 거의 조정한 상태"라며 "연내 통과를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내년에는 통과가 가능하리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에게 평화경제특구법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관련법을 발의한 만큼 이념법도 지역법도 아니라는 점을 적극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DMZ 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DMZ 일대에 예술작품을 설치해 평화를 염원하고 평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DMZ 평화예술사업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고, 평화테마 ICT 및 DMZ 실감미디어체험관 운영 예산을 확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봉착한 DMZ 평화관광에 대해선 "지금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됐을 때, 국민들이 먼저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이라며 "과거 냉전·분열 시기에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을 요구받았고 이를 감내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생명안전 위협까지 감내하라고 하는 게 합당한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